금호강누유사고현장을회상하며

왜가리의부리에쪼여 죽은 잉어를촬영하여금호강오염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어처구니없는 기사를여과 없이 내보내는 방송국도 있었다. 특히, 폐유찌꺼기에불을질러확대보도하는기자들을볼때에는분통이터질 때가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고에대한 원인규명보다는 여론몰이 중심의형식적인보도는 사회 전반에대한불신만을조성하였을뿐 근본적인 대책마련과는거리가있어 보였다.

고정현
정우개발(주) 부장

1980년대 이후 석유 소비량 증가로 도로, 해상에의존해 온 수송을 지하 압력관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안정을 가져온반면, 사고시토양 오염과 환경 피해우려도커지고있다. 특히도로, 하천에서의사고는주변생태계의파괴와완전복원이불가능하므로사고예방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할수있다.

2001년도에발생하였던대구금호강둔치의미군송유관파열사고는누유회수에만1년이소요되었고, 복구작업이3년이상걸린대표적인환경오염사고사례였다. 당시필자가현장소장으로조사한결과, 시공당시없었던8차선도로의옹벽구조물이매설관용접부에응력변형을일으켜피폭손상과부식으로기계적성질이50% 이상감소하였다.

금호강변에기름띠가발견된후누유지점을찾는데만3일이상이소요되었다. 용접부결함의경우육안으로식별할수없어금호강에무지갯빛기름막이형성된다음에야누유사실을확인할수있었던것이다. 이후매서운12월의날씨에도불구하고얼음을깨어오일휀스와 유흡착포를 설치하였고, 군고무마깡통을 개량하여 유공관을통해펌핑하는작업을3개월동안함으로써80만배럴이상을회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이러한 작업은 외부에 누유 사실이 공개될 경우야기될엄청난비난여론을의식하여철저한보안속에수행해야하는이중의어려움이있었다.

그해3월경해빙이되자둔치에몰려드는인파를계속통제하기가어렵고지역주민의신고로전국의TV 9시뉴스와4대일간지에매일같이보도되었다. 석달간공들여온복구작업이한순간에물거품이되었고심신은한계를초과한상태였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신문사 기자와 경찰서, 시와 구청, 환경청 공무원들의조사에는 손발을비벼가며별일아니라고 해명하였다. 퇴근후에는관계기관과의폭탄주접대등을통해사건무마에총력을기울인결과벌금형만받고복구작업을계속할수있게되었다.

한번은폭탄주를마시던중에핸드폰을받다가술잔에빠뜨려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내자신이꽤아부근성이있었고프로의식도강했던것 같다.

6월금호강의 물이빠지면서고립된 잉어들을손으로 잡는 재미가 있었다. 더욱이 7월경 내린 장맛비는 호안블록에있는기름띠와유분을희석시켜주었고복구작업은마무리될수있었다.

하지만과로와술로급성, 출혈성위염으로병원신세를졌고 대관 · 민업무의중요성을뼈저리게느꼈다. 한편으로는병적인사회단면을보는것같아씁쓸한심정이들기도하였다.

약삭빠른사람은둔치주변에 미나리등의작물을심어놓고는 1년수확량을보상해달라고강하게 요구하였다. 아파트단지내에서는집단소송의움직임도있었다.

왜가리의부리에쪼여죽은잉어를촬영하여금호강오염의정도가 심각하다는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여과 없이 내보내는 방송국도 있었다. 특히, 폐유찌꺼기에불을질러확대보도하는기자들을볼때에는분통이터질때가한두번이아니었다. 사고에대한원인규명보다는여론몰이중심의형식적인보도는사회전반에대한불신만을조성하였을뿐근본적인대책마련과는거리가있어보였다.

지난날을회상해보니, 실제복구작업에투입되어함께고생하였던건설근로자에대한고마움이현재와같은냉정한사회를녹이는힘이되지않는가생각해본다.

끝으로, 토질, 지반상태, 온도, 습도등의환경요인으로인한사고사례에대한다양한연구와함께유지관리의첨단기법도입에도 많은투자가있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나아가관 · 민의긴밀한협조와정기적인환경오염사고예방훈련등이쾌적한환경을유지할 수있는진리임을인식해야할것이다.